

시흥, 계량기 정기 검사 실시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야동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서, 부정계량기의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관수용·검시차·전기차지저울 등 4개 검사 대상이며, 저울보유자는 지역별 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ณ 된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번호변조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 중지 처분 등 파기 처분된다. 이번 검사는 우천과는 관계없이 진행되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공고된 지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합격 경우는 2016년 8월 5일까지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 후 검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과대과 차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시흥’ 비전 제시하다

시흥시 ‘시흥에서 문화를 말하다’ 제1화 개최

시흥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공무원 및 시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초청강연 ‘시흥에서 문화를 말하다’ 제1화를 개최했다.

초청 강사인 포제스 문화융성위원장은 ‘지역문화진흥을 통한 문화융성’이란 주제로 문화의 가치와 문화융성, 지역문화진흥의 가치 및 사례,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시흥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날 강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포 위원장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국내 산업 구조가 재조망에서 문화산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이 사회·경제 위기 극복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페인의 쇠퇴한 단골, 철광도시였던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해 문화예술의 도시로 변신한 사례를 들었으며, 국내의 경우

전주 남부시장 원형문, 인천아트플랫폼, 광명동굴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문화 진흥을 이끌어낸 다양한 예를 소개했다.

또한 시흥시가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편의와 관 주도 지역문화 지방, 정체성과 개성 있는 지역문화 창조, 남미상 같은 파시적 지역문화 탈피 등에 대해 강조했다. 강연을 들은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시흥이 되기 위해서는 시 공무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부터 변화해야할 수 있다”라며 “문화계 명사 강연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쌓고, 시흥의 문화 발전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꾸준히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개최되었다. 포 위원장 강연을 포함해 총 5명의 명사초청강연 및 토론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사초청강연 영상은 시흥시 홈페이지(www.culturesiheung.com)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go.siheung/)을 비롯해 문화도시 시흥 블로그(blog.naver.com/siheung) 등을 통해 다

시흥시(www.facebook.com/go.siheung/)을 비롯해 문화도시 시흥 블로그(blog.naver.com/siheung) 등을 통해 다 시 볼 수 있다.



행정/사회

[우리지역 이력 이야기]

배곧초 노지영 작가와의 만남

배곧초등학교(교장 황재진)는 16일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노지영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학생들이 게 왜 책을 읽고 고운 말을 써야 하는지, 고운 말의 효과는 무엇인지 등 바른 언어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노지영 작가는 KBS 어린이 프로그램 작가로 활동을 했으며, <해 육하면 안 되나>, <됐다! 지식 탐험대:지구가 요동친다, 과학 탐험 출동!>, <너 때문에 행복해>, <두근두근 방송국 탈출하기> 등을 지필했다. 배곧초 2학년 학생들은 <해 육하면 안 되나>의 노지영 작가를 만나 직접 작가가 원하는 동화책을 읽어보고 고운 말의 힘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 후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애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책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다. 2학년 학생은 “책을 듣는 친구들이 기본이 나빠 것 같어요. 그래서 열심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직한 말을 쓸 거예요. 좋은 강의를 해주신 작가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재해예방 특별 강연

시흥시 건강도시추진본부(본부장 안승철)는 9일 오후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안전보건공단 문원근 강사를 초대하여 외국인근로자 산업장 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와 함께 각 산업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재해 감소에 공동 목표로 계획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재해사례 및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별 외국인 안전보건강사의 자격이 통역이 제공되고, 안전소송을 교육 및 실습도 이어졌다. 강연 후에는 산업장 안전소식을 지키기 위한 결의문 낭독 및 서약문 작성, 캠페인 실시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장에서 재해 위험에 대한 한 번 더 점검하고 건강 살 수 있는 경각심을 부여 할 시간을 마련했다.

지역단신

대야종합사회복지관·신천동네관리소 ‘우리동네 단오축제’ 진행



대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고일영)·신천동네관리소에서는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소재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우리동네 단오축제’를 진행했다.

이번 단오축제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살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먹거리부터 팔씨름 대회, 우리동네 전통놀이 왕, 강강술래 등 축제 기원부터 운영까지 동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 진행한 데 의미가 있다.

축제에 참여한 한 동네 주민은 “우리 동네사람들이 직접하기가 더 즐겁고 좋네요. 아이들이 놀이 없이 놀이하며 자주 오는데 이렇게 잔치가 열리니까 더 즐거웠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우리동네 단오축제는 앞으로 매 년 소재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를 통해 마을의 가치를 공유하고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동네에 대한 소속감 및 애착심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우리 마을의 특색 있는 문화로 정착해나갈 예정이다.

군자도서관 ‘지구를 부탁해’ 환경프로그램 운영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시흥시 군자도서관은 ‘지구의 미래는 환경’이란 주제 아래,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4월, 6월, 9월, 12월에 관련된 테마 전시 및 영상물 상영,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이는 18일 ‘도심 속의 갯벌’을 주제로 하는 환경이 야기를 진행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도심 속의 갯벌’이란 주제의 강연자는 시흥환경운동센터장인 오, 갯벌과 관련된 궁금한 것들을 관련 영상물과 함께 이야기했다.

일꽃동 바다항기 도시텃밭 모내기 체험



일꽃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일꽃동 바다항기 도시텃밭 모내기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어린이들에게는 신선한 감성을 일깨워주는 일석이조의 체험행사로서 이날 모내기 체험에는 관내 일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시립일꽃 어린이집, 자연어린이집, 예일어린이집 어린이 200여 명과 주민자치위원, 동직원, 주민들이 참여하여 4가지 색채 벼 모내기를 실시했다.

체험행사에 참여한 한 주민은 “어릴 적 벼심기를 했던 기억이 난다”라며 “을 가을속 이 아름다운 풍경이 기대가 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으로 모내기 체험행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정경수 월곶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린이들이 모내기를 직접 체험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동시에 생태학습교육까지 가능한 행사로 마무리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흥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 접수

시흥시가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사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업, 대출사기, 폭행·심야 방문 등 불법 사금융 피해 ▲금융감독원 1332 ▲경기도 시민금융 복지지원센터 031-888-5550-1 ▲시흥시 경제정책과 031-310-2275, 2277-8 ▲인터넷(금감원, 경찰청)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의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시흥시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금융감독원, 경기도,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진행된다.

공동체 육아, 사회공헌나눔

‘세 살 마을 부모교육 사업’ 운영

시흥시 건강도시추진본부는 백세건강시대를 대비해

태아 시기부터 적극적으로 건강에 투자해 평생 건강의 기틀을 다지고자 공동 육아 사회공헌사업 <세 살 마을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세 살 마을>이란 ‘세 살 버터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과 온 마을 주민이 함께 아이를 키웠던 전래의 마을 공동체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통의 지혜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여 공동체적 양육 문화를 뿌리하는 나눔 공동체를 의미한다.

가천대학교·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이 함께 추진하는 <세 살 마을 부모교육 사업>은 건강한 출산 및 태아기부터 부모와 아이의 정서적 유대감 증진을 위한 임신부 교육, 조부모의 손자녀를 돌보는 긍정적인 역할 수행 도모와 양육에 대한 자신감 증진 교육으로 운영된다. 시흥시는 2015년에 이어 2년째 <세 살 마을> 사업과트너로 선정되어 지난 3월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도시추진본부 관계자는 “<세 살 마을> 사업을 통해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 학대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얼마후 시작 하는 육아가 아닌 아빠와 조부모, 나아가 사회 구성원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적 양육 문화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왕어린이도서관 ‘더불어 행복한

다문화사업’ 진행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은 시흥시에 외국인인 가 수 많고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2011년부터 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다문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올해 경기도 주최 ‘2016년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의 일환인 <다문화 독서동아리 양성 과정>을 7월부터 12회 운영한다. 다문화배경의 어린이와 부모들이 한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이다.



도시가스설비공사 형진건설(주)

- 도시가스시설시공업 ● 특정가스시설공사 ● 정압기분해점검 ● 경보기 및 차단기 설치 ● 보정기 설치

(본사) 031-318-0030~1 (부천시) 032-325-6139 (안산시) 031-416-5440